

ISSN: 2800-051X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26-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주4일제·주4.5일제 도입에 대한 인식

2025. 4. 23.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돋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직업에 대한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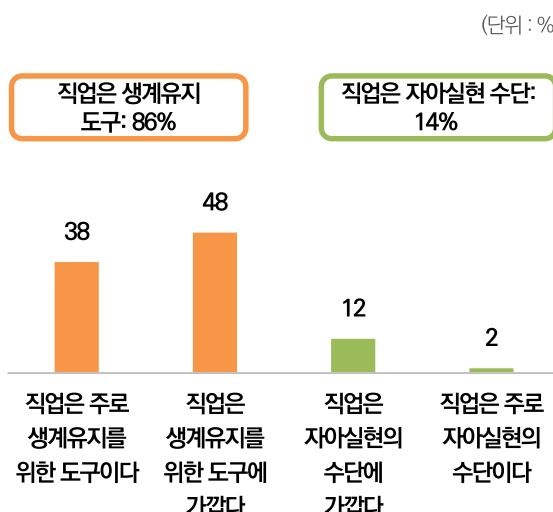
대다수가 직업을 자아실현 수단이 아니라 생계유지 도구로 받아들이고 있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 61%, 개인시간·워라밸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39%

주4일제, 주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에 앞서, 직업의 의미를 먼저 물었다. 직업은 생계유지의 도구일까, 자아실현의 수단일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더 중요할까, 개인시간과 워라밸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할까?

전체 응답자의 86%가 '직업은 생계유지를 위한 도구'라고 답했다. 직업을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전체의 14%에 그친다. 70세 이상에서도 77%가 직업을 생계유지의 도구로 보는 등, 직업을 자아실현 수단보다는 생계유지의 도구로 보는 인식을 세대나 성별 등과 관계없이 공유하고 있다.

돈을 많이 버는 것과 개인시간·워라밸 갖는 것 가운데 더 중요한 것으로는 61%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39%가 개인시간·워라밸 갖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했다. 여기서는 세대별 차이가 확인되는데, 18~29세에서는 54%가 개인시간·워라밸이 더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40대에서는 77%, 50대에서는 67%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해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 직업을 자아실현의 수단이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서도 70%는 금전적 이득보다는 개인시간과 워라밸을 갖는 것에 더 가치를 둔다.

대다수가 직업을 자아실현 수단이기보다는 생계유지 도구로 받아들이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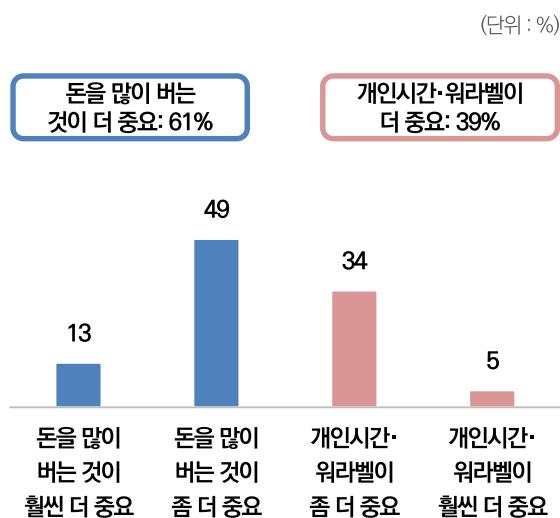


질문 : 직업의 의미에 대한 다음 의견 중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5. 2. 21 ~ 24

돈을 많이 버는 것 더 중요하다 61% 개인시간·워라밸 갖는 것 더 중요하다 39%



질문 :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5. 2. 21 ~ 24

**직업을 자아실현 수단이기보다는 생계유지 도구로 보는 관점은 세대·성별 등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공유
18~29세는 절반 이상이 워라밸 더 중요, 40대는 4명 중 3명 이상이 돈 많이 버는 것 더 중요**

(단위 : %)

사례수 (명)	직업의 의미		돈을 많이 버는 것 vs 개인시간·워라밸	
	생계유지 도구	자아실현 수단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더 중요	개인시간·워라밸 갖는 것이 더 중요
전체 성별 남자 (493) 여자 (507)	86 85 87	14 15 13	61 62 60	39 38 40
연령 18~29세 (155) 30대 (149) 40대 (175) 50대 (195) 60대 (177) 70세 이상 (149)	85 91 92 88 83 77	15 9 8 12 17 23	46 55 77 67 64 56	54 45 23 33 36 44
이념성향 진보층 (265) 중도층 (354) 보수층 (353)	89 85 86	11 15 14	60 63 61	40 37 39
직업 의미 생계유지 도구 (861) 자아실현 수단 (139)	– –	– –	66 30	34 70
돈을 많이 버는 것 vs 개인시간·워라밸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더 중요 (615) 개인시간·워라밸이 더 중요 (385)	93 75	7 25	– –	– –

질문 : 직업의 의미 – 직업의 의미에 대한 다음 의견 중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경제적 여유 vs 개인시간·워라밸 –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5. 2.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주 4일제·주4.5일제 도입 찬반

주 4일제 도입에는 찬성 46%, 반대 50%로 의견 갈리지만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61%)이 반대 의견(35%)보다 높아

오는 6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근로일 단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유력한 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14일, 금요일에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주4.5일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당의 정책은 완전히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여전히 상위권인 총 노동시간을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이 내세운 주4.5일제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유지하는 대신, 월~목요일은 한시간 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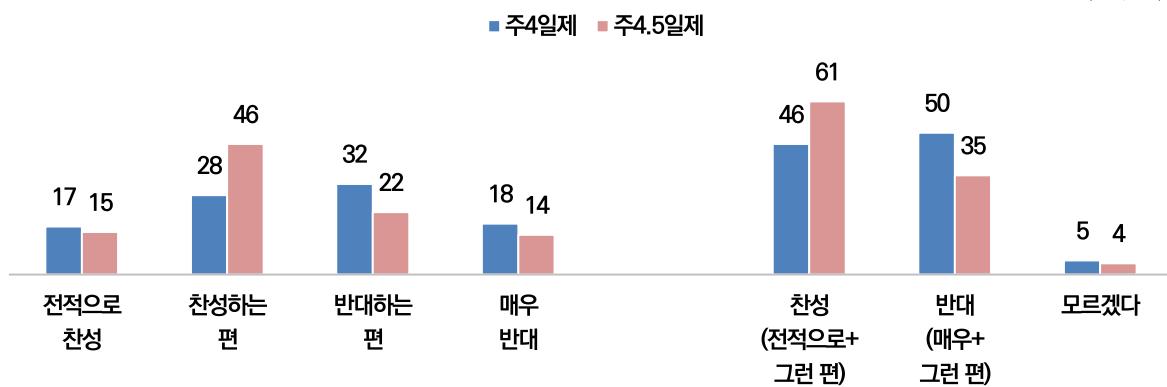
주요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근로일 조정 공약이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주4일제 도입과 주4.5일제 도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해 보았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일 단축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주4일제에 대해서는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46%)과 반대하는 사람(50%)간 차이가 크지 않다. 지난 2021년 10월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주4일 근무제에 찬성하는 사람이 51%, 반대하는 사람이 41%였는데, 3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반대 의견이 다소 늘었다. 반면 주4.5일제에 대해서는 61%가 도입에 찬성해, 반대 의견(35%)을 26%포인트 앞선다. 구체적인 단축근무 시행 방안에 대한 설명 없이 주4일제, 주4.5일제에 대한 찬반만 확인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정책이 더 공감을 많이 얻는다는 해석은 할 수 없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근무일 하루를 온전히 줄이는 것 보다는, 0.5일 줄이는 것을 조금 더 부담 없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주 4일제 도입에는 찬성 46%, 반대 50%로 의견 갈리지만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61%)이 반대 의견(35%)보다 높아

(단위 : %)



질문 : '주 4일 근무제'와 '주 4.5일 근무제' 도입에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5. 2. 21 ~ 24

2·30대, 정규직 임금근로자, 진보층, 고소득층은 근로인 단축 찬성 의견 높은 반면 60대 이상, 자영업자, 보수층, 저소득층에서는 찬성 의견 낮아

주4일제·주4.5일제 도입 찬반 여론은 세대와 이념 성향에 따라, 그리고 직장 지위별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 근로일 단축에 가장 적극적인 세대는 2030세대이다. 2·30대 3명 중 2명 정도가 주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데, 특히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30%를 넘는다. 주4.5일제 또한 18~29세와 30대 모두 76%가 도입에 찬성해, 전 세대 중 가장 높다. 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근로일 단축에 부정적인 인식도 늘어나서, 60대에서는 30%, 70세 이상에서는 17%만이 주4일제 도입을 지지한다. 다만 60대의 52%, 70세 이상의 41%는 주4.5일제는 도입에 찬성해, 주4일제 도입보다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인식차이도 크다. 정규직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62%가 주4일제 도입에, 74%가 주4.5일제 도입에 찬성한다. 반면에 자영업자 중에서 주4일제와 주4.5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은 각각 29%, 45%에 그친다. 영업일이 매출과 직결되는 자영업의 특성, 근로일 단축 시 대체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주4일제와 주4.5일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도 확인된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일 단축에 공감하는 비율이 높은데,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인 사람 중 주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52%)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38%)대비 높다. 고소득일수록 근로일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안정된 경제적 환경 속에서 삶의 질 개선에 남는 시간을 쏟을 수 있기에, 주4일제와 주4.5일제 도입을 더욱 긍정적으로 본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주4일제·주4.5일제 도입 찬반 여론은 연령대와 직장지위, 이념성향 등에 따른 차이 커
 2·30대, 정규직 임금근로자, 진보층, 고소득층은 주4일제·4.5일제 도입 찬성 의견 높은 반면
 60대 이상, 자영업자, 보수층, 저소득층에서는 도입 찬성 의견 낮아

(단위 : %)

	사례수 (명)	주4일제 도입		주4.5일제 도입	
		전적으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 찬성하는 편	전적으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 찬성하는 편
전체	(1,000)	17	46	15	61
성별					
남자	(493)	17	47	14	61
여자	(507)	18	44	16	60
연령					
18~29세	(155)	33	65	29	76
30대	(149)	31	64	24	76
40대	(175)	18	54	12	66
50대	(195)	15	44	12	56
60대	(177)	8	30	11	52
70세 이상	(149)	0	17	4	41
직장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378)	27	62	21	74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28)	14	44	16	58
자영업자	(118)	10	29	10	45
비경제활동	(376)	11	35	10	54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07)	14	38	12	55
300만원~600만원	(407)	17	47	16	62
600만원 이상	(286)	20	52	17	66
이념성향					
진보층	(265)	28	65	27	79
중도층	(354)	17	50	13	64
보수층	(353)	9	27	8	45
돈을 많이 버는 것 vs 개인시간·워라밸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더 중요	(615)	14	43	12	57
개인시간·워라밸이 더 중요	(385)	22	50	20	67

질문 : '주 4일 근무제'와 '주 4.5일 근무제' 도입에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5. 2.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주4일제와 주4.5일제 도입에 모두 찬성하는 사람은 43%, 모두 반대하는 사람은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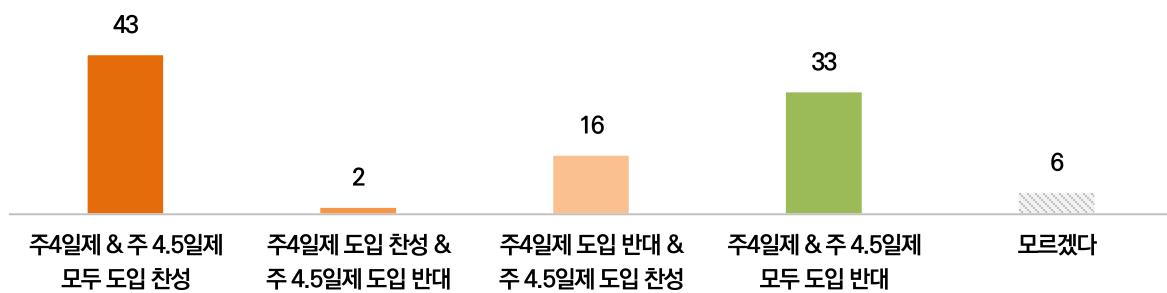
2·30대, 정규직 임금근로자, 진보층 60%가 주4일제·주4.5일제 도입 모두 찬성

70세 이상, 자영업자, 보수층은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주4일제·주4.5일제 도입 모두 반대

주4일제 및 주4.5일제 도입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전체의 43%는 주4일제와 주4.5일제 도입에 모두 찬성한다. 세대별로 나눠보면, 18~29세(61%)와 30대(62%), 정규직 임금근로자(59%), 진보층(63%)에서는 10명 중 6명 정도가 주4일제와 주4.5일제 도입에 모두 찬성한다. 반대로 33%는 주4일제와 주4.5일제 도입에 모두 반대한다. 70세 이상(54%), 자영업자(48%), 보수층(51%)에서 절반 정도가 주4일제와 주4.5일제 도입에 모두 반대한다. 주4일제 도입에는 반대하지만, 주4.5일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사람이 16%이며, 주4일제 도입만 찬성하는 사람은 2%로 소수이다.

주4일제와 주4.5일제 도입에 모두 찬성하는 사람은 43%, 모두 반대하는 사람은 33%

(단위 : %)



질문 : '주 4일 근무제'와 '주 4.5일 근무제' 도입에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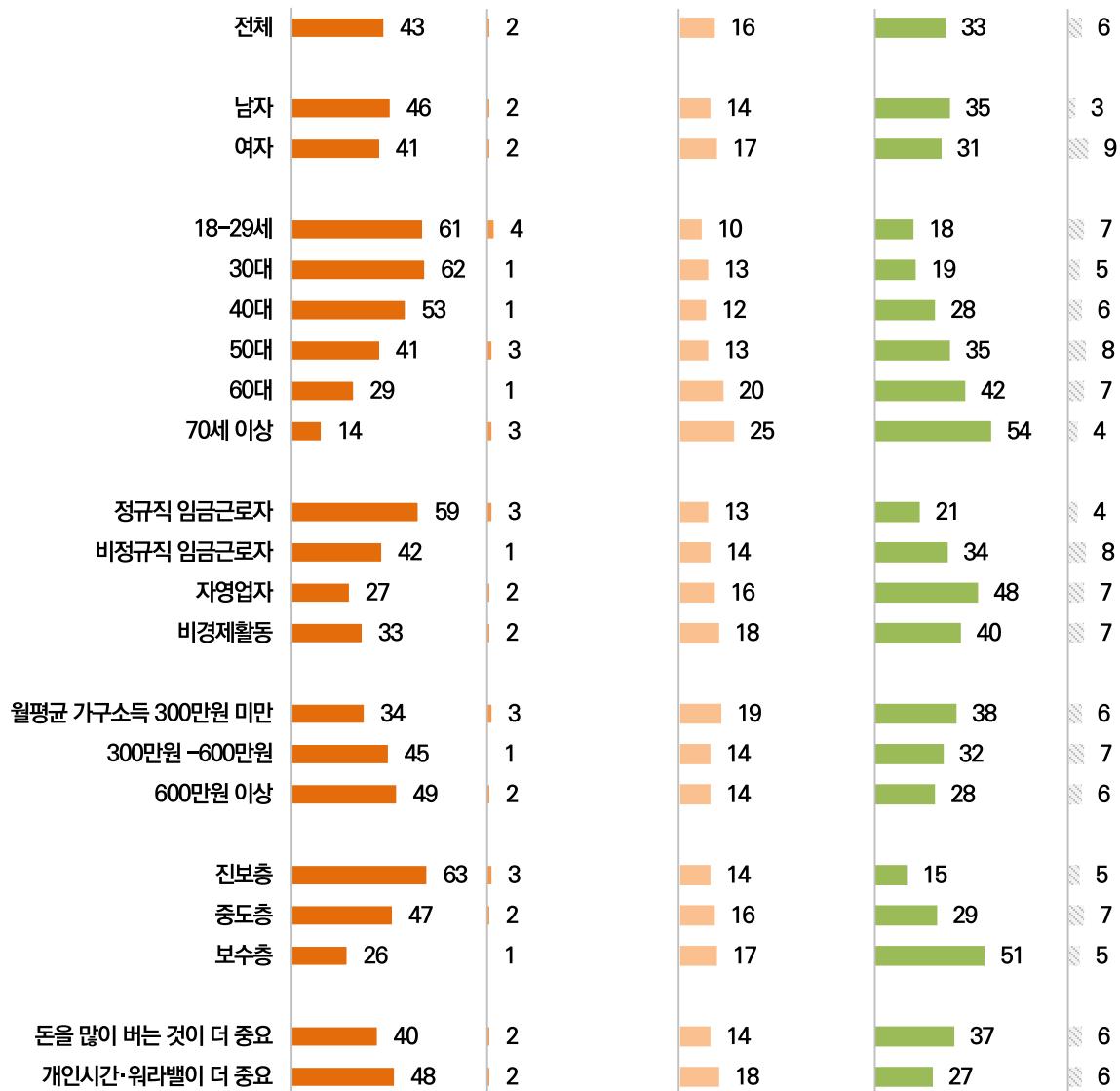
조사기간 : 2025. 2.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40대 이하, 정규직 임금근로자, 진보층은 주4일제·주4.5일제 도입 모두 찬성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
70세 이상, 자영업자, 보수층은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주4일제·주4.5일제 도입 모두 반대

(단위 : %)

■ 주4일제 & 주 4.5일제 ■ 주4일제 도입 찬성 & ■ 주4일제 도입 반대 & ■ 주4일제 & 주 4.5일제 ■ 모두 도입 찬성 ■ 주 4.5일제 도입 반대 ■ 주 4.5일제 도입 찬성 ■ 모두 도입 반대



질문 : '주 4일 근무제'와 '주 4.5일 근무제' 도입에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2. 21 ~ 24

주4일제·주 4.5일제 도입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 크다 52%, 크지 않다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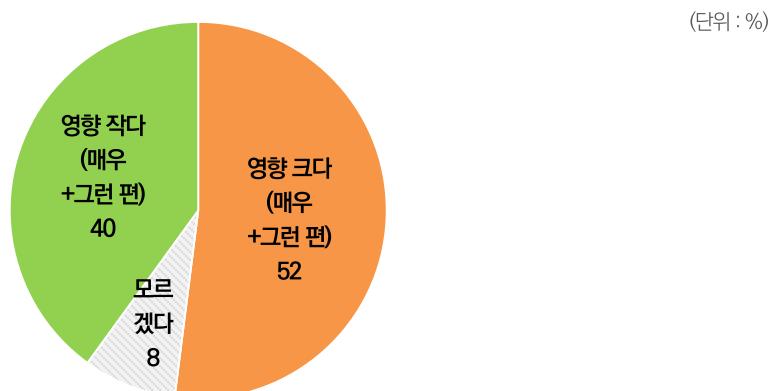
18~29세와 40대,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3명 중 2명이 삶에 미치는 영향 크다고 인식

60대 이상에서는 영향 작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

실제 주4일제 및 주4.5일제가 도입될 경우,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까? 절반(52%)은 근로일 단축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았다. 특히 18~29세(63%)와 40대(68%), 정규직 임금근로자(67%)가 영향력을 크게 체감할 것이라 예상했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영향력이 크다는 의견도 증가했다(월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3%, 600만원 이상 57%). 주4일제 및 주4.5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대비, 실제 도입 시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 예측했다. 반면 60대 이상과 비경제활동자 중에서는 절반이 근로일이 단축되어도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지난 [2021년 10월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주4일제가 삶에 미치는 영향 클 것이다 61%)와 비교하면, 예상되는 영향력은 다소 줄어들었다.

주4일제·주 4.5일제 도입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 크다 52%, 크지 않다 40%



질문 : '주 4일 근무제' 또는 '주 4.5일 근무제' 가 도입될 경우, 귀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5. 2.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18~29세와 40대,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3명 중 2명이 삶에 미치는 영향 크다고 인식하는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영향 작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

(단위 : %)

		영향 크다 (매우+ 그런 편)			영향 작다 (매우+ 그런 편)			모르겠다				
		사례수 (명)	전체	(1,000)	52	40	8	전체	(1,000)	52	40	8
성별								월평균 가구소득				
	남자	(493)	54		39		7	300만원 미만	(307)	43	44	13
	여자	(507)	50		40		10	300만원~600만원	(407)	55	37	7
연령								600만원 이상	(286)	57	38	5
	18~29세	(155)	63		29		8	이념성향				
	30대	(149)	56		41		4	진보층	(265)	57	37	6
	40대	(175)	68		26		6	중도층	(354)	53	39	7
	50대	(195)	50		39		11	보수층	(353)	48	43	10
	60대	(177)	42		51		7	주4일제 도입 찬반				
	70세 이상	(149)	33		53		13	찬성	(455)	62	33	5
직장지위								반대	(495)	46	45	10
	정규직 임금근로자	(378)	67		29		4	주4.5일제 도입 찬반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28)	56		41		4	찬성	(609)	56	39	5
	자영업자	(118)	43		44		13	반대	(352)	49	41	10
	비경제활동	(376)	38		49		13					

질문 : '주 4일 근무제' 또는 '주 4.5일 근무제' 가 도입될 경우, 귀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2.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세대(2·30대 찬성, 60세 이상 반대), 직업군(정규직 임금근로자는 찬성, 자영업자는 반대), 소득수준(고소득층은 찬성, 저소득층은 반대), 이념성향(진보층은 찬성, 보수층은 반대) 등에 따라 주4일제·주4.5일제 도입 찬반 여론이 나뉘는 가운데, 근로일 단축을 도입한다면 주4일제를 급진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주4.5일제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부작용이나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일 단축과 함께 자영업자 지원, 저소득층 소득 보전 방안 등 다양한 보완책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주 4일제·주4.5일제 기대효과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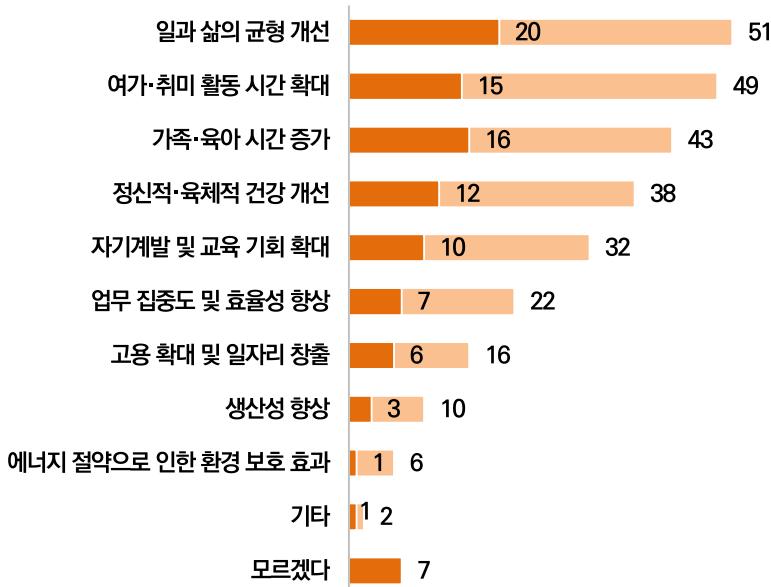
주4일제·주4.5일제 도입으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일과 삶의 균형 개선(51%) 여가·취미 활동 시간의 확대(49%)와 가족·육아 시간 증가(43%)에 대한 기대감도 커

근로일 단축으로 가장 기대되는 점은 일과 삶의 균형 개선(51%, 1+2+3순위), 여가·취미 활동 시간 확대(49%), 가족·육아 시간 증가(43%) 등이다. 2·30대, 정규직 임금근로자 등 근로일 단축에 우호적인 집단일수록 일과 삶의 균형 개선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 여성은 절반(46%)이 정신적·육체적 건강 개선을 기대한다.

주4일제·주4.5일제 도입으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일과 삶의 균형 개선(51%) 여가·취미 활동 시간의 확대(49%)와 가족·육아 시간 증가(43%)에 대한 기대감도 커

(단위 : %)

■ 1+2+3순위 ■ 1순위



질문 : '주 4일 근무제' 또는 '주 4.5일 근무제' 도입 시 기대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기대되는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최대 3개까지 선택)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2. 21 ~ 24

2·30대, 정규직 임금근로자 5명 중 3명 이상은 주4일제·주4.5일제 도입으로 일과 삶 균형 개선될 것으로 기대
40대는 가족·육아시간 증가, 여성 및 근로시간 단축 찬성측은 반대측 대비 정신적·육체적 건강 개선도 기대

(단위 : %)

사례수 (명)	일과 삶의 균형 개선	여가· 취미 활동 시간 확대	가족· 육아 시간 증가	정신적· 육체적 건강 개선	자기 계발 및 교육 기회 확대	업무 집중도 및 효율성 향상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약으 로 인한 환경 보호 효과	기타	모르 겠다
전체 (1,000)	51	49	43	38	32	22	16	10	6	2	7
성별											
남자 (493)	52	51	40	31	33	21	19	11	6	3	8
여자 (507)	50	46	45	46	32	23	13	10	6	2	6
연령											
18~29세 (155)	62	58	29	38	30	31	6	12	8	1	5
30대 (149)	62	41	44	46	26	25	12	10	5	0	6
40대 (175)	47	52	55	31	29	23	15	12	4	4	7
50대 (195)	46	47	31	44	36	21	20	10	5	4	8
60대 (177)	47	49	47	40	34	15	23	7	9	1	6
70세 이상 (149)	42	44	51	31	38	18	18	11	4	4	10
직장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378)	61	43	40	37	34	25	15	11	7	2	5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28)	48	53	40	41	34	20	19	11	5	4	6
자영업자 (118)	41	46	39	44	37	19	18	7	7	3	10
비경제활동 (376)	45	54	47	37	28	21	15	10	5	2	9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07)	45	48	38	36	31	21	19	11	6	2	11
300만원 ~600만원 (407)	53	47	44	41	32	22	17	10	5	2	5
600만원 이상 (286)	54	52	45	37	34	22	12	10	7	4	5
이념성향											
진보층 (265)	59	53	40	44	31	28	15	13	4	2	2
중도층 (354)	50	49	44	39	33	21	18	9	6	2	7
보수층 (353)	47	45	43	34	33	19	14	10	7	3	11
주4일제 도입 찬반											
찬성 (455)	65	48	40	45	30	29	18	13	5	1	0
반대 (495)	39	49	45	32	36	16	15	8	7	4	13
주4.5일제 도입 찬반											
찬성 (609)	62	50	43	42	31	27	17	13	5	1	1
반대 (352)	33	45	43	32	35	15	14	6	8	5	17

질문 : '주 4일 근무제' 또는 '주 4.5일 근무제' 도입 시 기대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기대되는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최대 3개까지 선택)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2. 21 ~ 24

주4일제·주4.5일제 도입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임금 감소(58%) 특정 업종의 운영 어려움(46%)과 직종 간 형평성 문제(44%)도 주요 우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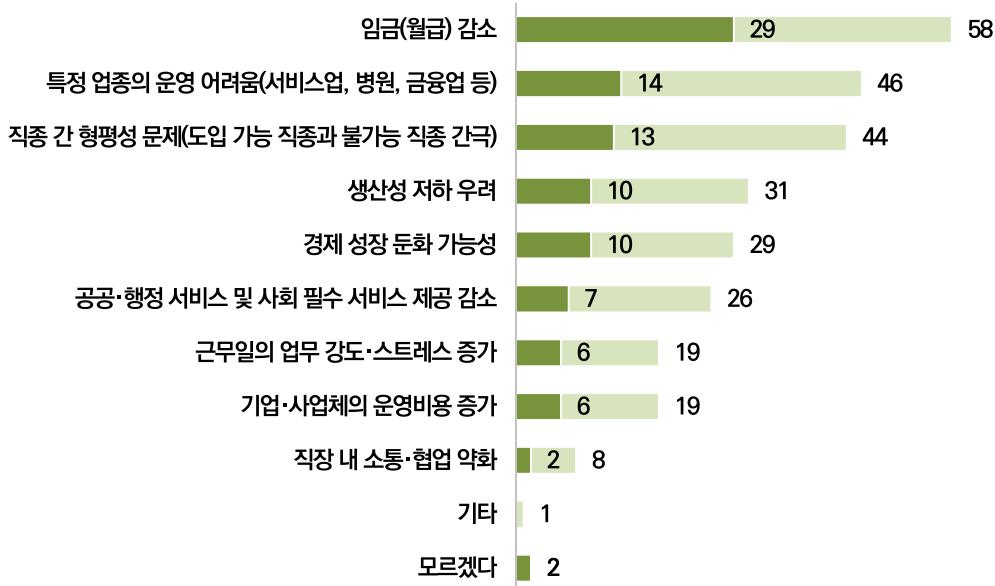
근로일 단축 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임금(월급)감소로, 응답자의 58%(1+2+3순위)가 이를 지적했다. 주4일제, 주4.5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60% 이상이 임금 감소를 현실적인 우려로 짚는다. 서비스업이나 의료, 금융업 등 특정 업종의 운영 어려움(46%), 도입 가능한 직종과 불가능한 직종 간의 형평성 문제(44%)도 주요 우려사항 중 하나이다.

근로일 단축에 대한 입장에 따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크게 차이를 보인다. 주4일제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42%가 생산성 저하와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을 우려한다. 반면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비율이 각각 21%와 14%에 그친다.

주4일제·주4.5일제 도입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임금(월급) 감소(58%) 서비스업, 병원 등 특정 업종의 운영 어려움(46%)과 직종 간 형평성 문제(44%)도 주요 우려지점

(단위 : %)

■ 1+2+3순위 ■ 1순위



질문 : '주 4일 근무제' 또는 '주 4.5일 근무제' 도입 시 우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우려되는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최대 3개까지 선택)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2.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근로시간 단축 찬성측도 임금(월급)감소는 주4일제·주4.5일제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점
60대 이상, 보수층, 근로시간 단축 반대측은 생산성 저하,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을 크게 우려

(단위 : %)

사례수 (명)	임금 (월급) 감소	특정 업종의 운영 어려움 (서비스 업, 병원, 금융업 등)	직종 간 형평성 문제 (도입 기능 직종과 불가능 직종 간극)	생산성 저하 우려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	공공· 행정 서비스 및 사회 필수 서비스 제공 감소	기업· 사업체 의 운영 비용 증가	근무일 의 업무 강도· 스트 레스 증가	직장 내 소통 ·협업 약화	기타	모르 겠다	
전체 성별	(1,000)	58	46	44	31	29	26	19	19	8	1	2
남자 (493)	59	44	43	33	30	22	23	17	9	2	3	
여자 (507)	57	49	45	29	27	29	16	22	7	1	2	
연령												
18~29세 (155)	65	46	39	25	21	24	15	24	9	1	3	
30대 (149)	73	49	49	17	19	23	12	22	9	2	3	
40대 (175)	63	50	50	23	22	24	17	22	11	2	2	
50대 (195)	60	41	42	31	31	27	20	19	8	1	3	
60대 (177)	53	43	44	42	31	32	24	17	4	0	2	
70세 이상 (149)	34	50	39	49	47	23	28	13	4	1	2	
직장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378)	62	45	50	23	24	24	19	21	8	1	3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28)	63	42	40	32	28	27	19	24	10	0	1	
자영업자 (118)	53	45	42	30	27	34	27	17	9	2	2	
비경제활동 (376)	53	49	40	39	34	24	18	17	6	2	3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07)	60	47	42	32	32	27	18	17	7	1	2	
300만원 ~600만원 (407)	59	45	44	31	28	26	19	19	8	1	2	
600만원 이상 (286)	54	48	46	31	27	25	21	22	8	1	3	
이념성향												
진보층 (265)	58	49	54	22	18	27	26	18	9	2	3	
중도층 (354)	63	47	43	29	28	24	14	23	9	2	3	
보수층 (353)	52	45	38	42	38	26	21	16	6	0	2	
주4일제 도입 찬반												
찬성 (455)	65	49	50	21	14	26	18	22	8	2	3	
반대 (495)	51	44	39	42	42	25	21	16	7	1	2	
주4.5일제 도입 찬반												
찬성 (609)	63	50	47	26	18	27	19	20	8	1	2	
반대 (352)	49	41	39	41	47	25	20	18	7	1	2	

질문 : '주 4일 근무제' 또는 '주 4.5일 근무제' 도입 시 우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우려되는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최대 3개까지 선택)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2. 21 ~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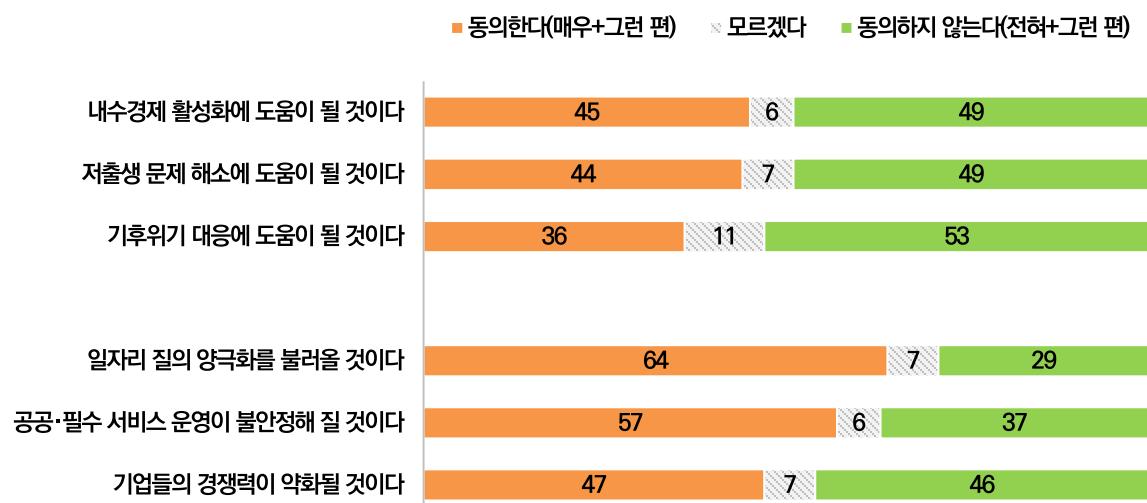
근로일 단축 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 엇갈리는 반면 일자리 질 양극화, 공공·필수 서비스 운영 불안정 등 부정적 영향 우려 커

주4일제·주4.5일제 시행 시,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 근로일 단축이 내수경제 활성화(동의 45%, 비동의 49%), 저출생 문제 해소(동의 44%, 비동의 49%)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찬반 의견이 엇비슷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반대 의견이 53%로 절반을 넘는다.

반대로 주4일제·주4.5일제 도입이 일자리 질의 양극화(64% 동의, 29% 비동의), 공공·필수 서비스 운영 불안정(57% 동의, 37% 비동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 근로일 단축이 모든 산업과 직종에 균등하게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데에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동의 47%, 비동의 46%).

근로일 단축 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 엇갈리는 반면 일자리 질 양극화, 공공·필수 서비스 운영 불안정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 목소리가 더 커

(단위 : %)



질문 : '주 4일 근무제' 또는 '주 4.5일 근무제' 시행 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2.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진보층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에 동의하는 의견 다수, 보수층은 반대의견 다수
2·30대와 정규직 임금근로자 절반 이상은 근로시간 단축이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것이라 기대

(단위 : %)

사례수 (명)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출생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동의한다 (매우+그런 편)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그런 편)	동의한다 (매우+그런 편)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그런 편)	동의한다 (매우+그런 편)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그런 편)
전체 (1,000)	45	49	44	49	36	53
성별						
남자 (493)	47	49	48	47	34	56
여자 (507)	43	48	41	51	38	50
연령						
18~29세 (155)	52	38	44	44	29	54
30대 (149)	54	38	42	51	33	50
40대 (175)	45	48	42	53	31	61
50대 (195)	48	46	47	46	43	46
60대 (177)	43	53	46	50	44	49
70세 이상 (149)	27	70	46	49	31	59
직장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378)	54	41	50	46	40	48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28)	46	47	51	44	39	49
자영업자 (118)	42	54	40	55	33	59
비경제활동 (376)	36	55	38	51	31	57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07)	39	54	42	50	36	53
300만원~600만원 (407)	44	49	46	47	38	50
600만원 이상 (286)	53	42	45	50	32	57
이념성향						
진보층 (265)	62	32	56	39	48	43
중도층 (354)	46	46	43	49	36	52
보수층 (353)	33	63	39	56	28	61
주4일제 도입 찬반						
찬성 (455)	68	26	62	32	49	38
반대 (495)	26	71	30	65	25	68
주4.5일제 도입 찬반						
찬성 (609)	60	33	58	36	46	42
반대 (352)	23	75	24	72	21	73

질문 : '주 4일 근무제' 또는 '주 4.5일 근무제' 시행 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고: 각 항목별 '모르겠다' 응답은 보여주지 않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2. 21 ~ 24

근로시간 단축 동의하는 사람도 주4일제·주4.5일제가 일자리 질 양극화 불러올 것이라는 데 다수가 동의
기업경쟁력 약화는 의견 갈려 – 70세 이상, 보수층, 근로시간 단축 반대측에서는 동의 의견이,
2·30대, 진보층, 근로시간 단축 찬성측은 반대 의견이 우세

(단위 : %)

사례수 (명)	일자리 질의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다		공공·필수 서비스 운영이 불안정해 질 것이다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동의한다 (매우+그런 편)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그런 편)	동의한다 (매우+그런 편)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그런 편)	동의한다 (매우+그런 편)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그런 편)
전체 (1,000)	64	29	57	37	47	46
성별						
남자 (493)	68	27	56	39	52	43
여자 (507)	61	31	57	35	42	49
연령						
18~29세 (155)	49	38	49	41	32	56
30대 (149)	63	31	50	44	34	57
40대 (175)	68	27	63	34	43	50
50대 (195)	68	25	54	38	46	47
60대 (177)	65	32	61	35	54	41
70세 이상 (149)	73	21	64	30	73	25
직장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378)	67	29	51	44	42	52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28)	69	22	60	36	50	41
자영업자 (118)	59	37	57	38	52	44
비경제활동 (376)	63	28	61	30	49	42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07)	61	30	59	34	47	45
300만원~600만원 (407)	66	28	57	37	48	45
600만원 이상 (286)	66	29	54	41	45	48
이념성향						
진보층 (265)	63	32	48	48	34	62
중도층 (354)	65	28	60	33	44	47
보수층 (353)	67	27	59	34	61	33
주4일제 도입 찬반						
찬성 (455)	60	34	46	49	27	66
반대 (495)	69	26	67	28	66	30
주4.5일제 도입 찬반						
찬성 (609)	62	31	52	43	36	58
반대 (352)	70	26	66	29	67	28

질문 : '주 4일 근무제' 또는 '주 4.5일 근무제' 시행 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고: 각 항목별 '모르겠다' 응답은 보여주지 않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2. 21 ~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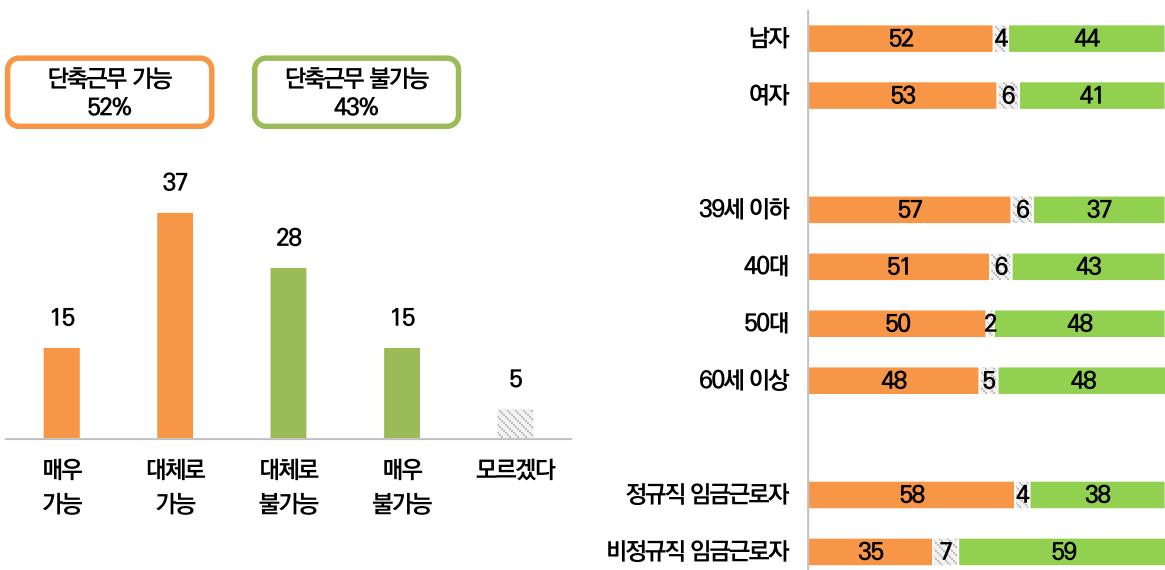
4. 주 4일제·주4.5일제 실현 가능성과 현실적 고려사항

임금근로자 중 단축근무제 도입 시, 실현 가능한 사람은 52%, 43%는 실현 불가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58%가 실현 가능한 반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35%만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

이번 조사에 참여한 임금근로자 506명 중 현재 직장/직무에서 주4일제 혹은 주4.5일제 근무가 가능하다고 답한 사람은 52%이다. 43%는 단축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5%는 판단을 유보했다. 정규직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58%가 근로일 단축이 가능하다고 예측한 반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35%만이 가능하다고 답해 차이를 보인다.

임금근로자 중 단축근무제 도입 시, 현 직장/직무에서 실현 가능한 사람은 52%, 43%는 실현 불가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58%가 실현 가능한 반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35%만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

(단위 : %)



질문 : '주 4일 근무제' 또는 '주 4.5일 근무제' 가 도입될 경우, 현재 직장/직무에서 주 4일(혹은 4.5일) 근무가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임금근로자 50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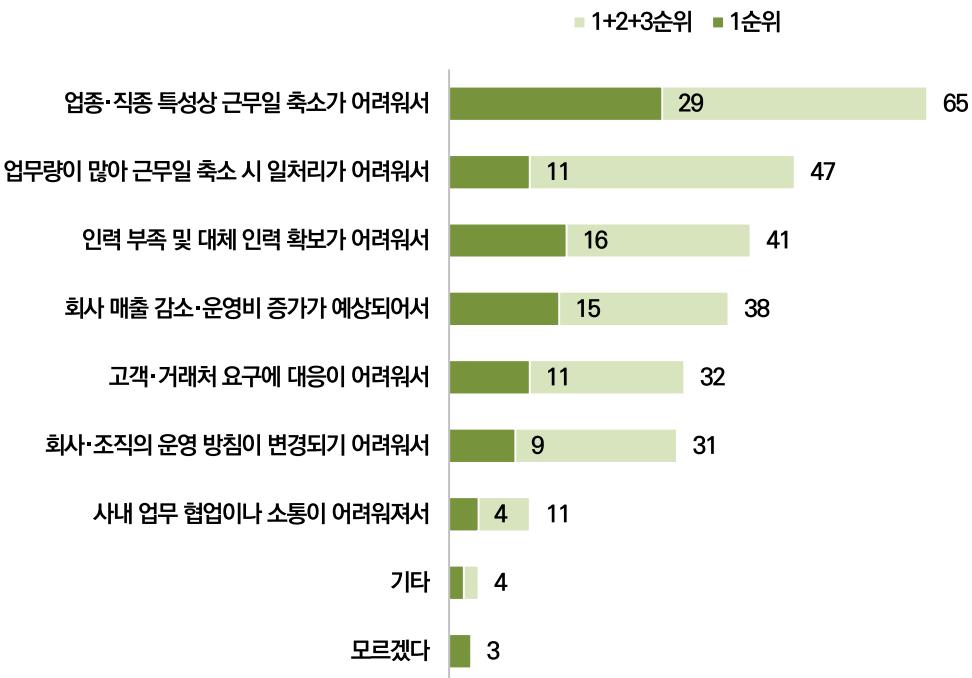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2. 21 ~ 24

근로일 단축 불가능한 주된 이유, 업무·직종 특성상 근무일 축소가 어려워서(65%) 업무량이 많은 점(47%)과 대체 인력 확보 문제(41%) 등도 주요 요인

주4일제 혹은 주4.5일제가 도입되어도 본인은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답한 가장 주된 이유로는 '업종·직종 특성상 근무일 축소가 어려워서(65%, 1+2+3순위)'이다. 근로일 단축이 현실적으로 모든 산업과 직종에 적용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업무량이 많아 근무일 축소 시 일처리 어려움(47%), 인력 부족 및 대체 인력 확보 어려움(41%) 등도 주4일제 혹은 주4.5일제 사용을 막는 주요 요인이다.

근로일 단축되어도 실현 불가능한 주된 이유, 업무·직종 특성상 근무일 축소가 어려워서(65%) 업무량이 많은 점(47%)과 대체 인력 확보 문제(41%) 등도 단축근무제를 사용할 수 없는 주요 요인

(단위 : %)



질문 : 주 4일(혹은 4.5일) 근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최대 3개까지 선택)

응답자 수: 임금근로자 중 단축근무가 가능하지 않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 242명

조사기간 : 2025. 2. 21 ~ 24

60%는 '주4일제·주4.5일제 시행해도 임금은 주5일제 수준 유지해야' 임금 줄어들면 63%는 '단축근무 하지 않을 것'… 업무 강도 증가해도 46%는 '단축근무 할 것'

근로일 단축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급여 감소나 업무 강도 증가 등 현실적인 변화가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 근로일 단축에 대한 원칙적인 찬반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조건 변화에 따른 수용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만약 주4일제 혹은 주4.5일제가 도입되어 근무시간이 지금보다 줄어든다면, 급여 감소도 수용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60%는 '근무 시간이 줄어도 급여는 주5일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34%는 '근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급여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 감소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다수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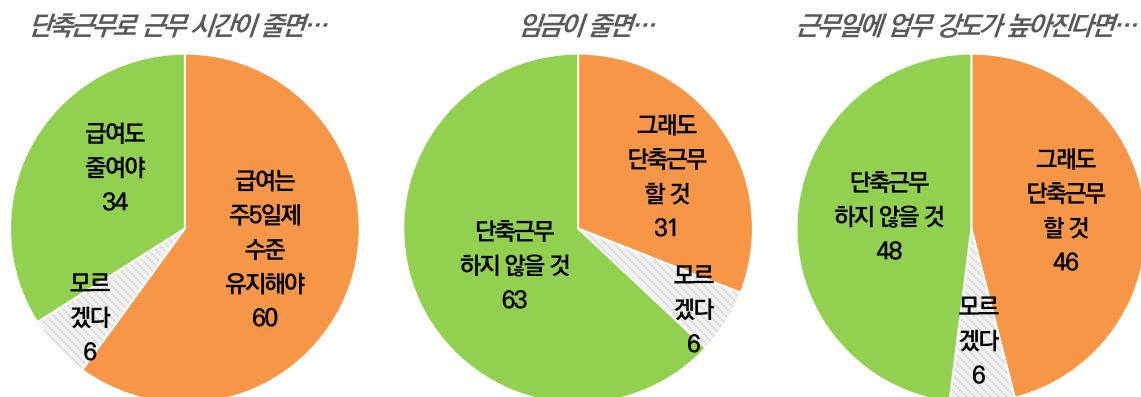
급여 유지가 전반적인 경향이긴 하나, 세대별, 직장지위별 인식차이는 뚜렷하다. 50대 이하에서는 최소 64% 이상이 급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급여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한다. 정규직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71%가 급여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절반(52%)이 급여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일 단축에 찬성하는 사람은 70% 이상이 급여 유지를 기대하는 반면, 반대하는 사람은 절반이 급여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금이 줄더라도 주4일 혹은 주4.5일 근무를 하겠다는 사람은 31%에 그친다. 이보다 두 배 많은 63%는 급여가 줄어들 경우, 단축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 중에서도 46%는 급여가 줄 경우 단축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근로일을 줄이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감수할 의향은 낮은 것이다.

반면 근로일 단축에 따른 업무 강도 증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용적이다. 46%는 근무일에 업무 강도가 높아지더라도, 주4일 혹은 주4.5일 근무를 하겠다고 답했다. 48%는 근무일에 업무 강도가 높아진다면 단축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주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 중에서는 32%가 근무일 업무 강도가 높아진다면, 단축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60%는 '주4일제·주4.5일제 시행해도 임금은 주5일제 수준 유지해야' 임금 줄어들면 63%는 '단축근무 하지 않을 것'… 업무 강도 증가해도 46%는 '단축근무 할 것'

(단위 : %)



질문 : '주 4일 근무제' 또는 '주 4.5일 근무제' 가 도입되어 근무 시간이 지금보다 줄어들 경우,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5. 2. 21 ~ 24

질문 : '주 4일 근무제' 또는 '주 4.5일 근무제' 가 도입될 경우,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현재 일이 있으신 분은 지금 하는 일을 기준으로, 현재 일이 없으신 분은 앞으로 일을 갖게 될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해 주세요.

질문 : '주 4일 근무제' 또는 '주 4.5일 근무제' 가 도입될 경우,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현재 일이 있으신 분은 지금 하는 일을 기준으로, 현재 일이 없으신 분은 앞으로 일을 갖게 될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해 주세요.

60대 이상, 자영업자 중 절반은 '단축근무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급여도 줄여야'

2·30대, 정규직 임금근로자, 진보층은 급여 감소나 업무강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축근무 할 것'

6·70대, 자영업자, 보수층은 급여가 줄거나 업무강도가 증가한다면 '단축근무 하지 않을 것'

(단위 : %)

사례수 (명)	단축근무 도입으로 근로시간 감소 시...		단축근무 도입으로 급여도 줄여야		단축근무 도입으로 근무일의 업무 강도가 높아진다면...	
	급여는 주5일제 수준 유지해야	급여도 줄여야	그래도 단축근무 할 것	단축근무 하지 않을 것	그래도 단축근무 할 것	단축근무 하지 않을 것
전체 (1,000)	60	34	31	63	46	48
성별						
남자 (493)	57	38	36	59	50	45
여자 (507)	63	30	26	67	43	51
연령						
18~29세 (155)	64	27	41	53	50	43
30대 (149)	73	22	31	59	54	40
40대 (175)	67	29	25	72	51	46
50대 (195)	64	30	30	64	48	46
60대 (177)	49	45	32	62	40	54
70세 이상 (149)	44	51	25	69	34	59
직장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378)	71	24	35	61	55	40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28)	60	33	29	65	45	49
자영업자 (118)	45	52	27	68	42	54
비경제활동 (376)	54	38	28	64	40	53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07)	57	36	28	65	42	52
300만원~600만원 (407)	62	33	31	62	46	47
600만원 이상 (286)	59	34	33	63	52	45
이념성향						
진보층 (265)	72	24	39	58	61	36
중도층 (354)	65	28	30	61	47	47
보수층 (353)	47	48	26	69	37	58
주4일제 도입 찬반						
찬성 (455)	76	19	49	46	64	32
반대 (495)	47	49	15	80	31	63
주4.5일제 도입 찬반						
찬성 (609)	71	23	41	53	58	37
반대 (352)	42	53	14	81	28	65

질문 : 단축근무 도입으로 근로시간 감소 시 급여 – '주 4일 근무제' 또는 '주 4.5일 근무제' 가 도입되어 근무 시간이 지금보다 줄어들 경우,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단축근무 도입으로 급여 감소 시 의향 – '주 4일 근무제' 또는 '주 4.5일 근무제' 가 도입될 경우,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현재 일이 있으신 분은 지금 하는 일을 기준으로, 현재 일이 없으신 분은 앞으로 일을 갖게 될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해 주세요.

단축근무 도입으로 근무일 업무강도 증가 시 의향 – '주 4일 근무제' 또는 '주 4.5일 근무제' 가 도입될 경우,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현재 일이 있으신 분은 지금 하는 일을 기준으로, 현재 일이 없으신 분은 앞으로 일을 갖게 될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해 주세요.

비고: 각 항목별 '모르겠다' 응답은 보여주지 않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2. 21 ~ 24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은 세대, 직업, 소득수준, 이념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주4일제보다 주4.5일제에 더 호의적인 가운데, 특히 2030세대와 정규직 임금근로자, 고소득층, 진보층이 근로일 단축에 가장 우호적이다. 반면 60대 이상, 자영업자, 저소득층, 보수층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근로일 단축의 주요 기대효과로는 워라밸 개선, 여가시간 확대, 가족시간 증기가 꼽혔으나, 동시에 임금감소, 업종별 운영 어려움, 형평성 문제와 일자리 질 악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근로일 단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임금 수준 유지가 핵심이다. 과반수는 근로일 단축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도 급여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급여 감소 시 단축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다수이다. 근로일 단축 찬성자 중에서도 상당수는 임금 감소 시 단축근무를 거부할 의향을 보였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업무 강도 증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용적이어서, 총 노동량은 유지하되 근무일수를 조정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4일제를 급진적으로 도입하기보다 주4.5일제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자영업자 지원, 저소득층 소득 보전 방안, 업종 특성에 맞는 적용 등 다양한 보완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12월 기준 약 96만명)
표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1,000명
표본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사요청 41,977명, 조사참여 1,519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2.4%, 참여대비 65.8%)
조사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5년 2월 21일 ~ 2월 24일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Research

